2022
06
통권 466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의 집합교육이 가능해진 지난 5월 20일 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비혼모 56명과 자녀들 43명 등이 참석하여 1부에는 가족법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2부 순서로는 휴식과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였다. (관련 내용 21-27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생각하는 청렴에서 실천하는 청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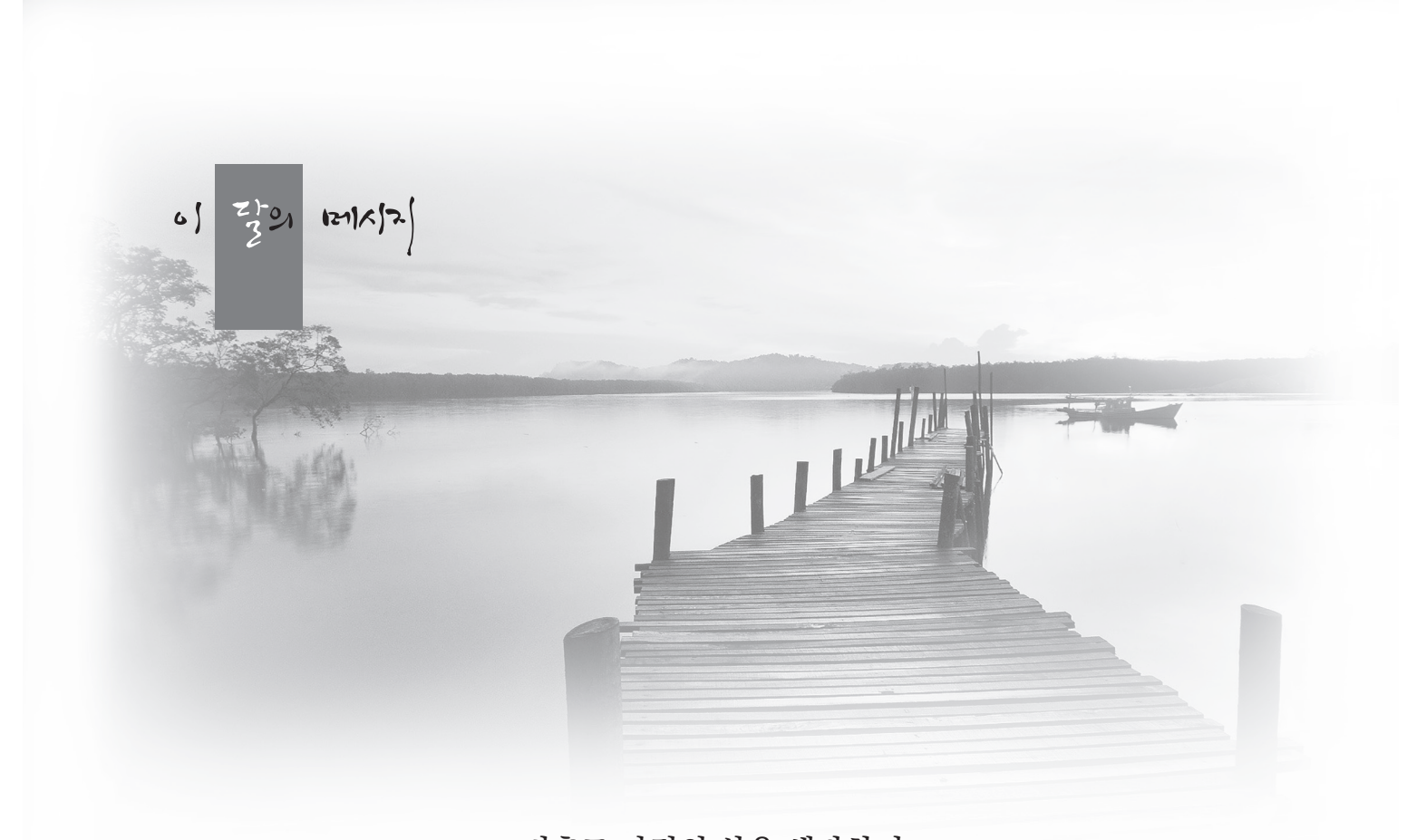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 ③ 가정폭력
21 • 특별기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비혼모가정 프로그램
29 • 가정폭력상담실
30 • 어떻게 할까요
32 • 결혼과 인생(226) 영화 이야기
쁘띠 마망 _ 김용언
34 • 좋은 책
저주토끼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 기사 넘쳐 기획연재는 쉽니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양양해변의 해당화〉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2. 6.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이 달의 메시지



비혼모 가정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사회 모든 가정이 필요한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960년대 서구의 사회학 이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전통사회에서 가계의 연속성을 설명하던 “세대”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연령층별현상을 설명하는 학술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보통 30년을 한 단위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담소의 역사는 두 세대를 훌쩍 넘어 백 년인 “세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질풍노도라는 말이 어울리는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 속에서 가정과 그 가정 안의 개인, 개인의 삶 또한 요동쳐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그 가정, 가족구성원의 두 세대를 넘어 한 세기를 향해 가는 시간의 역사적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저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철폐와 호주제 폐지로 대표되는 가족법개정운동이 그랬고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과 시행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비(미)혼모 가정의 삶’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비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 민법은 다만 비혼모의 자녀(혼인외의 출생자)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반적인 규정 –성과 본, 입적, 인지, 상속 등 –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

적인 규정들만으로는 비혼모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의 복리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2003년 상담소에서 주최한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 – 비혼모 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 심포지엄에서 “비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용 교수(상담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가 쓴 첫 문장으로 이는 상담소의 문제의식과 그대로 닿아있습니다. 이때부터 상담소는 더욱 본격적으로 비혼모 가정과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법과 정책, 제도의 개선을 위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 법 개정과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어 비혼모의 부양청구권과 다양한 정책 방향 특히 출생기록 차단에 관한 번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첫 실시 이후(2016년부터는 삼성생명 사회공헌위원회의 도움으로) 비혼모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자녀동반 캠프 및 일일교육, 출장법교육 및 출장상담 등이 그것인데 특히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마련, 건강보험관련 등에 관한 교육, 심리상담,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자녀동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 여름에 치러지는 캠프와 체험활동에 대한 이들 가정의 기대와 활동을 마친 후 소감을 보면 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는지 확신하게 됩니다.

현재 비혼모가정에 관한 법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과 정책이 그러하듯 이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 역시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화 및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내용 면에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일인가구는 물론 비(미)혼모 가정까지 모든 가정과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는 “둘도 많다”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주장하면서 인구조절을 시대적 과제로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돌보지 못하는 사회는 존속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정은 물론 현실적으로 취약하고 위기에 놓인 가정과 그 가족구성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과 복리를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그들 각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새 정부가 비혼모 가정을 비롯해 모든 가정과 가족 문제에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정법원의 본소 수탁상담 증가추세, 예년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I. 들어가는 말

본 상담소는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자 총 413명을 수탁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1] 2020년에 위탁받아 2021년까지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 143명을 포함하면 2021년에 상담을 진행한 행위자는 모두 556명이었으며, 이 중 346명은 2021년에 상담을 종료하였다. 이하에서는 2021년에 상담이 종료된 346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항목별 분석 내용

1) 사건 관련

① 수탁 법원

2021년에 상담이 종결된 346명을 수탁한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이 98.8% (342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 법원명	수(명)	백분율(%)
서울가정법원	342	98.8
수원가정법원	2	0.6
춘천지방법원	1	0.3
미국법원	1	0.3
합 계	346	100

2)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0대가 30.1%로 가장 많아
부부폭력,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남성 행위자에게 더 커
일자리 잃고 1년이 넘도록 무직인 상태 지속

부부의 경우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아

성별차이 보여
남성은 술 마시고 늦게 귀가,
여성은 가사 및 육아 협조원해
부부간 동상이몽으로 폭력발생

1) 구체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410명, 수원가정법원 2명, 춘천지방법원 1명을 포함하여 총 413명을 2021년에 수탁받았다. 이는 2019년 232건, 2020년 231건에 비해 1.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혼인형태에 따라 차이

초혼인 경우 가사와 육아분담문제,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이 폭력 주요 촉발요인이었고,
재혼인 경우 부부간 불신의 문제가 커

① 남녀별

행위자 346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266명(76.9%), 여성이 80명(23.1%)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57명(62.5%)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로, 2020년 55.8%(24명)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하여 부부 상호간 폭력사건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행위자 80명 중 71명(88.8%)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쌓였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한 '폭력'을 방어 내지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 성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266	76.9	96	27.7
여 성	80	23.1	250	72.3
합 계	346	100	346	100

②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0.1%(10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7.7%), 30대(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30.3%(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2.3%), 50대(21.4%)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 연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 대	-	-	1	0.3
20 대	22	6.4	42	12.1
30 대	60	17.3	77	22.3
40 대	104	30.1	105	30.3
50 대	96	27.7	74	21.4
60 대	55	15.9	41	11.8
70 대	8	2.3	4	1.2
80대 이상	1	0.3	2	0.6
합 계	346	100	346	100

③ 교육수준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42.8%(14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40.2%(139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이 44.5%(154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41.1%(142명)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42.7%(82명), 대학교 졸업 34.8%(67명)이었던 2020년과 차이를 보이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6	1.7	12	3.5
중 졸	28	8.1	21	6.0
고 졸	148	42.8	142	41.1
전문대졸	5	1.4	4	1.2
대 졸	139	40.2	154	44.5
대학원이상	20	5.8	13	3.7
합 계	346	100	346	100

④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6.9%(9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18.8%(65명), 무직 14.7%(51명) 순이었다. 무직인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2%(16명)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2.4배 증가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1%(21명)과 비교하였을 때 1.3배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남성에게 더 크다는 언론보도처럼, 남성 행위자가 무직인 경우가 18.4%(49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6%(13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된 기간인 2020년 13.3%(2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직인 남성행위자 49명은 모두 피해자와 부부관계로

가족을 부양하던 일자리를 잃고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였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40.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21.1%(73명)을 차지했다.

구분 / 직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 부	44	12.7	139	40.1
회사원	93	26.9	73	21.1
단순노무	39	11.3	20	5.8
자영업	65	18.8	36	10.4
교육직	3	0.9	9	2.6
전문직	13	3.7	13	3.8
기술직	23	6.6	8	2.3
운전	11	3.2	2	0.6
학생	3	0.9	17	4.9
공무원	1	0.3	3	0.9
무직	51	14.7	26	7.5
합 계	346	100	346	100

⑤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6.1%(9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4.3%(84명)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2%(18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월수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5	1.4	3	0.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2	9.2	36	10.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84	24.3	69	19.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4	21.4	36	10.4
500만원 이상	61	17.6	22	6.4
일정한 수입이 없음	90	26.1	180	52.0
합 계	346	100	346	100

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가 284명으로 8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성인자녀관계인 경우가 14.2%(49명)로 나타나 2020년 8.9%(17명)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6배 증가하였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도 남매관계, 형제관계, 자매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관계 / 구분		수(명)	백분율(%)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249	71.9
	사실혼 부부	35	10.1
부모-자녀 관계	부모-성인자녀 관계	49	14.2
기타 가족관계	남매 관계	6	1.7
	형제 관계	4	1.2
	자매 관계	3	0.9
합 계		346	100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168명)에 부부 일방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 9.5%(33명)인 것으로 나타나, 2020년 15.2%(23명)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외국인 행위자는 총 16명으로 이들의 본국은 중국이 75%(1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이 18.8%(3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해자는 총 24명으로 이들의 본국 역시 중국이 66.7%(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베트남이 29.2%(7명)로 나타났다.

구분 / 본국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중국	12	75.0	16	66.7
베트남	3	18.8	7	29.2
뉴질랜드	1	6.2	-	-
태국	-	-	1	4.1
합 계	16	100	24	100

⑦ 혼인형태별[2)]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67.6%(192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 혼인형태	수(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192	67.6
(남)재혼-(여)초혼	21	7.4
(남)초혼-(여)재혼	16	5.6
(남)재혼-(여)재혼	55	19.4
합 계	284	100

⑧ 동거기간별[3)]

1년 이상 5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순으로 폭력발생 많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전년대비 1.6배 증가,
10년 전 대비 2.2배 증가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7.8%(79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0년 17.8%(30명)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인 2011년 12.7%(7명)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2.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폭력발생과정 차이 보여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부부 79명의 경우 성별에 따라 폭력의 발생과정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55명)의 경우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음주문제가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이유없이 행패를 부리며 마찰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92.7%, 51명).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찍 귀가하여 가사와 육아의 일부분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요구를 말대꾸, 의심, 간섭으로 받아들여 흥분, 격분하게 되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여성(24명)의 경우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12명, 50%). 그 다음으로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채팅 내용을 핸드폰에서 발견하여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장에서 다른 손님과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격분하는 등 부부간 불신의 문제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8명, 33.3%).

이처럼 동거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더라도 남성인 행위자는 술을 핑계로 기분이 상한다며 폭력을 사용하여 통제와 제압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면, 여성인 피해자는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거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형태에 따라서도 폭력발생과정 차이 보여

한편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부부 79명의 경우 혼인형태에 따라 폭력의 발생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초혼인 경우에는(34명) 가사와 육아분담의 문제(17명, 50%) 등 남녀 공동의 과제가 원활하게 타협되지 않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10명, 29.4%) 등 부부 두 사람의 관계에 시어머니나 시누이, 장모나 장인 등 원가족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행위자나 피해자 어느 한쪽이 재혼인 경우(45명) 전처 또는 전혼자녀에게 양육비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재결합의 여지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늦은 귀가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등 부부간 불신의 문제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1명, 68.9%).

2)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84명)에 국한하였다.
3)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284명)에 국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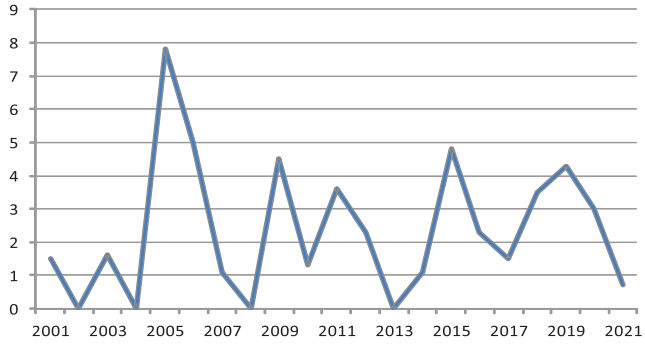
구 분 / 동 거 기 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2	0.7
1년 이상 ~ 5년 미만	79	27.8
5년 이상 ~ 10년 미만	54	19.0
10년 이상 ~ 20년 미만	59	20.8
20년 이상 ~ 30년 미만	47	16.6
30년 이상	43	15.1
합 계	284	100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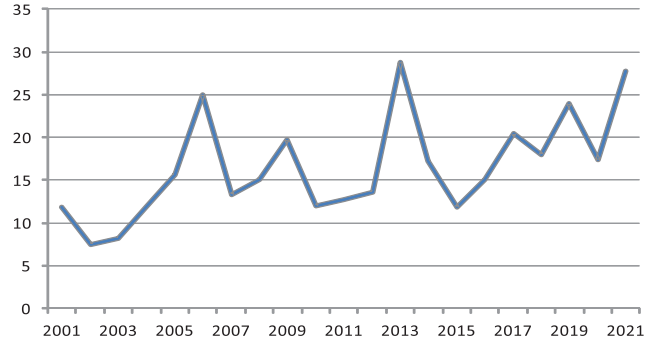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5.2%로 가장 많아

아내의 남편폭력의 경우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분담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남편에게 폭력한 경우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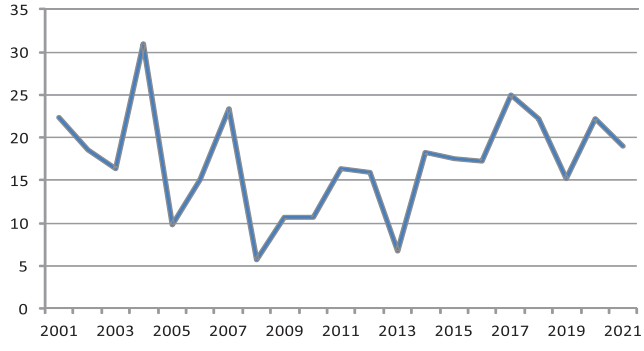
〈 1년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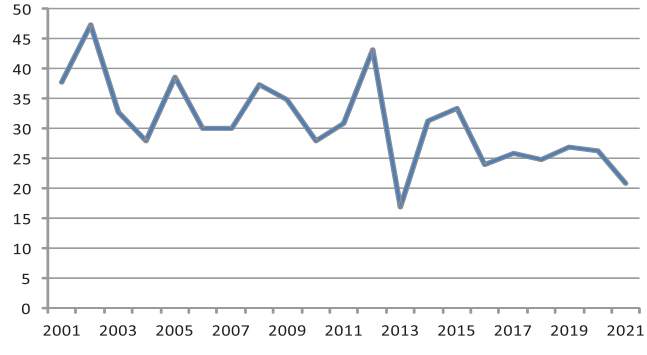
〈 1년 이상 – 5년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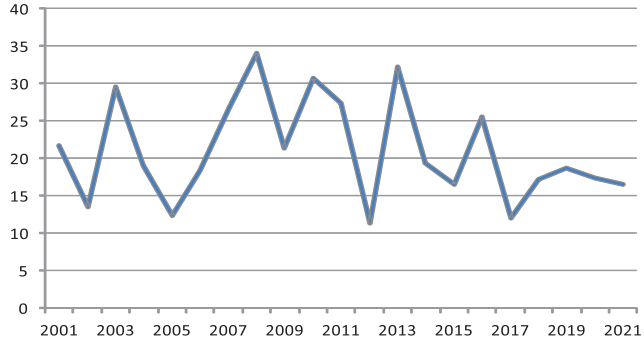
〈 5년 이상 – 10년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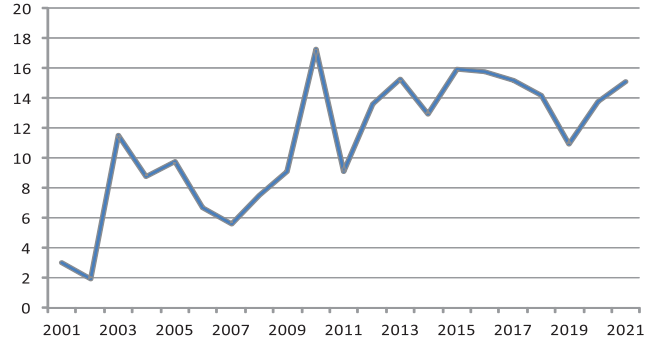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 30년 이상 〉



〈 그림 1. 2001년-2021년 동거기간 추이 분석 〉

2020년에 비해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사건 증가
이는 극단적인 분노조절 실패로 볼 수 있어

①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55.2%(19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10.4%(36명)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이 3.7%(7명)에서 9.2%(32명)로 그 비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도 1.5%(3명)에서 3.9%(13명)로 그 비율이 2.6배 증가하였다.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36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사분담이나 육아분담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24명, 66.7%).

구 분 / 폭력유형		수(명)	백분율(%)
부부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191	55.2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35	10.1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36	10.4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22	6.3
부모-자녀관계	자녀폭력	32	9.2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한 부모의 맞대응	1	0.3
	부모폭력	14	4.0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 대한 자녀의 맞대응	2	0.6
기타 가족관계	형에 의한 동생폭력	3	0.9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	3	0.9
	동생에 의한 언니폭력	2	0.6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	1	0.3
	언니에 의한 동생폭력	1	0.3
	동생에 의한 오빠폭력	1	0.3
	동생에 의한 형폭력	1	0.3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에 대한 누나의 맞대응	1	0.3
합 계			

②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7.4%(337명)로 가장 많았다. 1주 이상 5주 미만의 상해를 입힌 경우도 2.6%(9명)에 달했다.

구 분 / 폭력수준	수(명)	백분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337	97.4
1주 이상 ~ 5주 미만	7	2.0
5주 이상 ~ 10주 미만	52	0.6
합 계	346	100

③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를 살펴보면, 그 죄명이 '폭행'인 경우가 55.2%(191명)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20년 49%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물손괴'가 6%(21명)로 많았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경우도 7.5%(26명)에 달했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구 분 / 폭 력 수 준	수 (명)	백분율 (%)
폭행	191	55.2
재물손괴	21	6.0
특수협박	20	5.8
특수폭행	20	5.8
폭행, 재물손괴	20	5.8
상해	13	3.7
존속폭행	8	2.2
협박	6	1.7
특수상해	6	1.7
폭행, 특수협박	6	1.7
보호처분집행감독	5	1.4
특수폭행, 폭행	4	1.2
상해, 폭행	4	1.2
특수재물손괴	3	0.9
특수협박, 재물손괴	3	0.9
폭행, 협박	2	0.6
특수존속협박	2	0.6
특수협박, 특수폭행	2	0.6
존속폭행, 특수협박	1	0.3
재물손괴, 폭행, 협박	1	0.3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1	0.3
존속폭행, 재물손괴	1	0.3
특수폭행, 재물손괴	1	0.3
폭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1	0.3
상해, 특수협박	1	0.3
특수협박, 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1	0.3
강간, 폭행, 특수폭행	1	0.3
상해, 폭행, 존속상해	1	0.3
합 계	346	100

④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행동, 성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폭력 행동은 법원에서 접수한 보호처분결정문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34개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폭력 행동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였다.

행위자 모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는 정서적 폭력 행사해

첫째, 정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 346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어 폭력으로 야기되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함이 더욱 큰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고 호소하면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에 행위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상담처분을 이행하면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하였던 폭력의 정의를 상대방의 정서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재물손괴도 폭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는 등 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적 폭력 중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47.4%(164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52.6%(101명)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0년 전인 2011년 38.2%(21명)에 비해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우'는 36.4%(126명)으로 2020년 47.4%(91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0년 전인 2011년 30.9%(17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 또는 가정 내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통제욕구에 기인하여 다양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있었다.

이외 정서적 폭력 중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

〈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항 목	폭력행동 유무	
	없음(%)	있음(%)
정서적 폭력	-	346(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346(10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82(52.6)	164(47.4)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	220(63.6)	126(36.4)
4.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316(91.3)	30(8.7)
5.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328(94.8)	18(5.2)
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325(93.9)	21(6.1)
경제적 폭력	325(93.9)	21(6.1)
7.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330(95.4)	16(4.6)
8. 피해자의 재산 또는 피해자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없이 처분하였다.	332(96.0)	14(4.0)
9.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329(95.1)	17(4.9)
10.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337(97.4)	9(2.6)
통 제	276(79.8)	70(20.2)
11.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94(85.0)	52(15.0)
12.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99(86.4)	47(13.6)
1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했다.	293(84.7)	53(15.3)
1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89(83.5)	57(16.5)
15.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92(84.4)	54(15.6)
1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했다.	303(87.6)	43(12.4)
17.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92(84.4)	54(15.6)
18. 사회활동(직업갖기, 교육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292(84.4)	54(15.6)
19.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89(83.5)	57(16.5)
2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했다.	333(96.2)	13(3.8)
성적 폭력	341(98.6)	5(1.4)
21.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341(98.6)	5(1.4)
22.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341(98.6)	5(1.4)
2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341(98.6)	5(1.4)
24.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없이 촬영했다.	346(100)	-
25.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유포했다.	346(100)	-
경미한 신체적 폭력	65(18.8)	281(81.2)
26. 피해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250(72.3)	96(27.7)
27.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145(41.9)	201(58.1)
28.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171(49.4)	175(50.6)
심한 신체적 폭력	104(30.1)	242(69.9)
29.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214(61.8)	132(38.2)
30. 피해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293(84.7)	53(15.3)
31.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38(68.8)	108(31.2)
32. 피해자 목을 졸랐다.	297(85.8)	49(14.2)
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270(78.0)	76(22.0)
34.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280(80.9)	66(19.1)

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2020년 7.3%(14명)에 비해 8.7%(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든 결혼생활을 지켜가는 원동력인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자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끼는 반려견을 집어던지거나 집어던지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포함되었는데(10명),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환경이라면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경제적 폭력 많아

둘째, 경제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1%(21명)로 나타났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한 경우'가 4.9%(17명)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위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월소득이 얼마인지, 매월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피해자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가 경제적 공유를 요구하면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던 카드를 내놔라,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 경제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부부가 성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공유를 통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족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외출이나 귀가 시간 허락받도록 하고, 각방쓰며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해

셋째,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의 유형에서는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한 경우'와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가 각 16.5%(35명)로 가장 많았다.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한 경우'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사회활동을 통제하고, 외출할 때에 귀가시간을 정해놓으며 약속한 귀가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시로 전화하면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자의 통제행위는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보여졌는데(17건), 외국국적인 피해자가 한글을 배우거나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우리사회 다문화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보다는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잦은 모임을 가지면서 부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피해자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간관계를 제약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통제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 없이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인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는 한 집에 살면서도 오랜 기간 각방을 쓰면서 집에 들어와도 기본적인 인사나 안부를 묻기보다는 자신이 머무는 방으로 들어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는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하게 되면서 부부간 대화가 단절되어 정서적인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자의 통제행위는 피해자의 우울 등을 호소하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져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30명).

부부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성적 폭력도 있어

넷째, 성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적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1.4%(5명)로 나타나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부부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무력을 사용하여 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였다.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성적 폭력으로 이어져 성적으로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경미한 신체적 폭력 가장 많아

다섯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81.2%(153명)로 나타나 2020년 79.7% (153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58.1%(201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0년 52.1%(100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하거나, 자신을 훈계하려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거나 밀쳐낸 것뿐이라며 자신의 폭력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에 비해 심한 신체적 폭력 다소 증가해

여섯째, 심한 신체적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9.9%(242명)로 나타나 2020년 68.8% (132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38.2%(132명)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31.2%(108명)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우'는 2020년 12.5%(24명)에 비해 14.2%(49명)로 증가하였는데, 목을 조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뛰어넘어 극단적인 분노조절 실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분노조절에 실패한 행위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었다.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에 따른 분석

폭력행사 이유 :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 부부간 불신 → 경제갈등 순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불평등한 가치관 강화시키고,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2020년에 이어 경제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사 많아
- 코로나19로 실직상태 이어지기 때문

① 폭력행사 이유

행위자가 상담위탁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7.6%, 244건), 부부간 불신(16.9%, 150건), 경제갈등(13%,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4)]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7.6%, 244건)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집안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해놓은 반찬을 먹었냐고 물어본 것을 추궁받는 것으로 느끼고',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다가 썼다고', '피해자와 자녀가 귀가한 자신을 아는 척 하지 않고 주방에 설거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침이 자신의 얼굴에 튀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게

4)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끔 하였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여', '자신이 쓰는 안경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애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목욕시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육아문제와 자녀양육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70건, 7.9%).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양육을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가사노동이나 육아분담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하려는 남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32건, 3.6%). 아동 및 청소년기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학업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생활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38건, 4.3%).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6.9%, 150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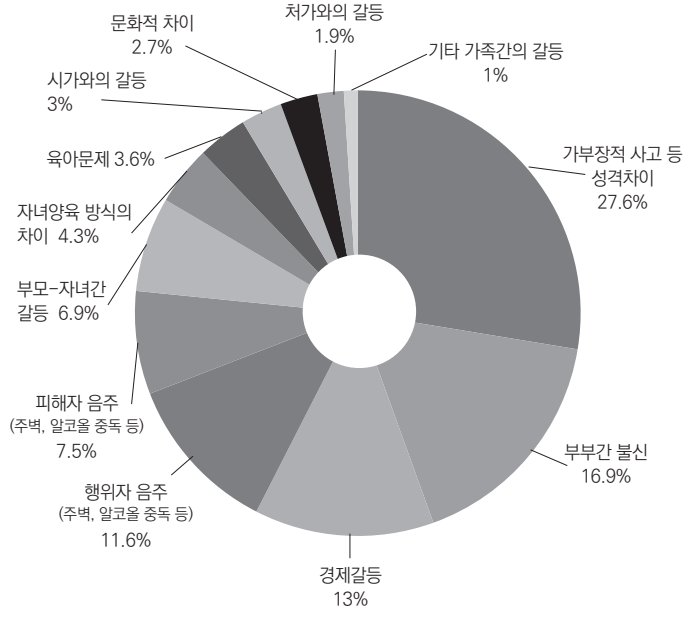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잦은 회식자리 참석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없이 외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이 못마땅하여'. '피해자가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에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직장상사와 전화통하하는 것을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러 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을 폭력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경제갈등(13%, 115명)으로 나타났다.

경제갈등으로 인한 폭력은 2020년 13.6%(60명)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실직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빚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빈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수입과 지출을 피해자와 공유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을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폭력사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부부간 경제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불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통제를 가하는 것 등이 경제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구 분 / 폭력행사 원인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244	27.6
부부간 불신	150	16.9
경제갈등	115	13.0
행위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103	11.6
피해자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66	7.5
부모-자녀간 갈등	61	6.9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38	4.3
육아문제	32	3.6
시가와의 갈등	26	3.0
언어 등 문화적인 차이	24	2.7
처가와의 갈등	17	1.9
기타 가족간의 갈등	9	1.0
합 계	885	100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그림 2. 폭력행사 이유]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피해자 등 상담 병행 71.1%
행위자 중 72.3%가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

① 상담대상자별

법원에서 피해자 상담을 병행하도록 결정한 경우는 11.3%(39명)에 달했는데, 이는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 욕구와 동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상담한 경우가 68.8%(238명)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는 전체 346명 중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였다(71.1%, 246명). 이는 상담처분을 통해 대다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구 분 / 상담대상자	수(명)	백분율(%)
행위자 본인상담	108	31.2
행위자 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상담	238	68.8
합 계	346	100

② 상담방법별

2021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워졌기에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상담으로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역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는 4,560건의 개별상담, 239건의 부부상담, 12건의 가족상담이 실시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주문제 상담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21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24회로 166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24회로 99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45회 실시되었으며, 총 317명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둥지교실」은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 10회의 교육강좌가 실시되었고 총 361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인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 부부캠프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부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1년도에는 총 556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1년도에는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총 24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313명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연계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여성 5명에서 진료 및 상담,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비대면 및 대면으로 유연하게 진행한 결과, 2021년에 상담이 종료된 346명 중 72.3%(219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구 분 / 상 담 방 법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96	27.7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38	11.0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 집단상담	85	24.6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27	36.7
합 계	346	100

5)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의 폭력중단
부부는 상담종료 이후 54.2%가 화해 · 동거

① 부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284명의 상담 종료시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회복 여부를 살펴보았다.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7.9%(278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6명은 상담위탁처분이 6개월 기간연장(4명) 또는 음주문제로 인한 폭력재발로 치료위탁(2명) 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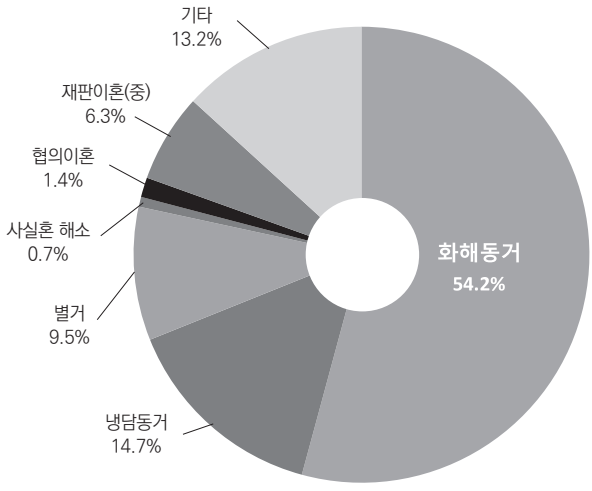
구 분 /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278	97.9
폭력재발 함	6	2.1
합 계	284	100

나. 부부관계 회복 여부

부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4.2%(154명)로 가장 많았다.

구 분 / 상담종료 후 부부관계	수(명)	백분율(%)
화해 • 동거	154	54.2
냉담 • 동거	42	14.7
별 거	27	9.5
사실혼 해소	2	0.7
협의이혼	4	1.4
재판이혼(중)	18	6.3
기 타[5]	37	13.2
합 계	284	100

5) 기간연장(4.6%, 13명), 보호처분 변경(7.4%, 21명), 보호처분 취소(0.8%, 2명), 보호처분 경정(0.4%, 1명)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3.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② 부모자녀관계

가. 폭력재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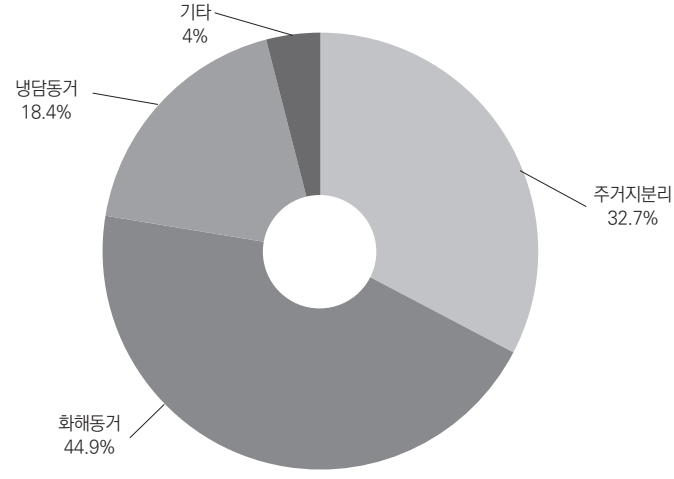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49명),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담종료시까지 95.9%(47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폭력이 재발된 2명은 보호관찰로 처분이 변경되어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폭력의 재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구 분 / 상담처분 중 폭력재발여부	수(명)	백분율(%)
폭력재발 없음	47	95.9
폭력재발 함	2	4.1
합 계	49	100

나.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부모자녀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44.9%(22명)으로 많았다.

구 분 / 상담종료 후 부모자녀관계	수(명)	백분율(%)
주거지 분리	16	32.7
화해 ·동거	22	44.9
냉담 ·동거	9	18.4
기 타[6]	2	4.0
합 계	49	100



[그림 4. 상담종료시 부모자녀관계]

III. 맺음말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처벌법상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상담을 종료한 행위자는 총 346명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의 중요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266명(76.9%), 여성이 80명(23.1%)로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행위자 80명 중 71명(88.8%)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쌓였던 분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한 '폭력'을 방어 내지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보호처분 변경(4%, 2명)을 포함하였다.

둘째, 행위자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가 14.7%(51명)로 2020년 11%(21명)와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무직인 남성행위자 49명은 모두 피해자와 부부관계로 가족을 부양하던 일자리를 잃고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였다.

셋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27.8%, 79명), 10년 이상 20년 미만(20.8%, 59명), 5년 이상 10년 미만(19%, 54명) 순으로 폭력발생이 많았다. 남성(55명)의 경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가사와 육아분담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와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여성(24명)의 경우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12명, 50%). 또한 혼인형태에 따라 폭력의 발생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초혼인 경우에는(34명) 가사와 육아분담의 문제(17명, 50%) 등 남녀 공동의 과제가 원활하게 타협되지 않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10명, 29.4%) 등 부부 두 사람의 관계에 시어머니나 시누이, 장모나 장인 등 원가족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행위자나 피해자 어느 한쪽이 재혼인 경우(45명) 부부간 불신의 문제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1명, 68.9%).

넷째, 폭력의 유형으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5.2%(191명)로 가장 많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인 남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남편에게 폭력을 한 아내 36명의 폭력행사 이유를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사분담이나 육아분담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간 갈등이 증폭되어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24명, 66.7%).

다섯째,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는 '폭행'이 55.2%(191명)로 가장 많았지만, '재물손괴'와 '협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던 가정폭력사건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각하게 체감하고 인식하여 법적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여섯째, 행위자 346명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2020년 7.3%(14명)에 비해 8.7%(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든 결혼생활을 지켜가는 원동력인 자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족처럼 아끼는 반려견을 집어던지거나 집어던지겠다고 위협한 경우였다. 정서적 폭력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환경이라면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81.2%(153명)로 나타나 2020년 79.7%(153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58.1%(201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9.9%(242명)로 나타났다. 심한 신체적 폭력 중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38.2%(132명)로 가장 많았다.

여덟째, 행위자의 폭력행사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27.6%, 244건), 부부간 불신(16.9%, 150건), 경제갈등(13%,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부부간 불평등한 가치관을 강화시켜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는 우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아내 또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약자이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홉째,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284명) 97.9%(278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4.2%(154명)로 가장 많았다. 본소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차연실 상담위원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상담소*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비혼모가정 등에 꾸준한 관심 가지고
심포지엄과 조사 연구 등 통해 법안과 정책을 제기하면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해 와

2022 봄,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를 마치고

비혼모가정이 꼭 알아야 하는 가족법 강의 및 상담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친 비혼모가정의 몸과 마음의 충전 나들이

본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집합교육이 가능해진 지난 5월 20일 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비혼모가정워크숍에는 비혼모 56명과 자녀들 43명 그리고 본소 직원들과 비혼모시설종사자 등 총 113명이 참석하였다. 1부 시간에는 비혼모가정이 꼭 알아야 하는 가족법 강의와 상담이 있었다. 비혼모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는 물론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기부터 어려움과 혼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에서는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을 정하는 방법,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개인 파산 및 면책 등에 대해 비혼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꼭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강의 후에는 자녀의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로 2020년부터 집단 교육 및 프로그램진행이 불가하여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1년 1회 10명의 비혼모만을 대상으로 조촐한 캠프를 진행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간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비혼모 프로그램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되었음. 한편 2020년에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캠프 및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던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주거마련, 건강보험관련 등에 관한 교육을 책자와 동영상 자료로 개발한 바 있음. 이어 2021년에는 제작한 자료(만화책 등)를 전국업무협력기관(17개소)과 전국 미혼모·한부모가정 관련 시설(94개 시설) 등에 배포하였고, 필요 시 상담과 현장교육을 통해 비대면교육과 대면교육 및 상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캠프 개최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비혼모 가정을 위한 대면·비대면 상담 및 교육은 상시 진행함. 상담과 교육 후 인지,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의 소송구조가 필요한 비혼모가정에 소송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비혼모가정의 복리를 도모하고 있음.

성변경, 인지, 양육비 청구, 파산 및 면책 등의 법률 상담이 있었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부 순서로는 용인 에버랜드에서의 휴식과 체험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지친 비혼모 엄마들과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비혼모들은 양육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의료비 지원, 인지(양육비,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 채무와 관련된 법률문제와 비혼모시설 퇴소 후의 자립준비(주거, 생활 등)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 가족여행, 가족체험, 돌봄시설과 아이돌봄지원확대, 자녀교육지원, 한부모지원 (수급비, 일자리지원, 취업, 자격증취득, 학원비, 진로체험), 임대정보, 경제적 지원, 의료비지원, 법률상담과 무료소송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9년부터 비혼모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과 함께 비혼모의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 인지와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1박 2일 자녀동반 캠프 및 일일교육, 출장법교육 및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비혼모가정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인 어려움에 주목하여 주거마련, 건강보험관련 등에 관한 교육, 심리상담,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자녀동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다. 이에 본소는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생활」 만화책(1,500부)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미혼모관련 시설 및 관계기관(111여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등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혼모 가정은 비혼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 상황은 출발부터 어렵다.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기에 전일근로 일자리 취업이 어렵고, 결국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지 못한 비혼모는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이러한 경제적 활동의 제약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결국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혼모들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아져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풍족하지 못한 경제력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자녀의 양육상황에서 자녀와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은 결국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다른 파산면책 사건에 비해 적은 채무액이지만 생활비로 진 채무로 인해 경제능력이 없는 비혼모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2009년 비혼모 캠프를 처음 시작한 이후로도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매해 워크숍을 통해 비혼모가정의 현실을 접하며 비혼모 가정의 편에서 이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상담소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노력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조은경 상담위원

조**

아이가 어려서 저 혼자 캠프를 참석하려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막상 놀이공원에 와서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아이처럼 학생처럼, 놀다 보니 100분 줄을 서는 것도 즐겁고, 웃고 밥 먹고 기념품 쇼핑을 즐기며 육아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많아지고 참을성도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또 후회하길 반복하며 우울감도 느끼고 하는데, 하루 신나게 웃었던 오늘을 생각하며 더 참고 더 웃는 엄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도 소중하고 엄마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찍은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함께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같이 오자, 같이 와서 이것도 같이하고 저것도 같이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상품권으로 "에버랜드 맛집"도 찾아보고, 음료수도 마시고,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할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념품 인형도 한가득 샀어요. 집에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발걸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놀이기구를 타며, 기다리는 시간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요리를 잘하는, 청소를 잘하는, 양육자로, 이웃 엄마로서만 알았는데, 누구는 바이킹을 무서워하고, 누구는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소녀 같은 동심을 잃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에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김**

임신 중일 때, 놀이기구가 너무 타고 싶었지만, 아기를 위해 타지 못했습니다. 00원에 들어와서 법률상담과 도움들을 받고, 그동안 오고 싶었던 에버랜드에 와서 꽃 구경과 놀이기구를 타고 식사와 간식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좋았고 재미있었습니다.

박**

아이의 근육병 진단과 함께 관련된 것들을 수시로 체크 하면서, 재활 수영과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행복나들이를 통해 저와 아이가 함께 좋은 공기와 예쁜 풍경들을 눈과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복잡한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견뎌낼 힘이 생겼습니다. 아이에게 긍정의 힘을 가득 실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앞으로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덕분에 꽃같은 하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 박****

놀이기구와 동물들을 보아서 무서웠지만,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입을 벌리는 모습을 찍을 수 있어서, 엄마와 나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기를 둔 엄마인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애들을 데리고 놀러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이 선생님이 "애들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다며" 시간 있을 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첫째 아이가 캠프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호랑이를 봤는데, 금번 나들이에서는 새로 태어난 둘째 아이가 처음으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윤****

학교를 빠지고 에버랜드에 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인형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이랑 행복나들이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네요.

서**

코로나로 통제받고 있는 시기에 힘들었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를 통해 에버랜드 나들이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인지, 에버랜드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5월이라 그런지 꽃들도 만개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쳤는데,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고 물을 맞으니, 더위가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판다월드에 가서, 아기 판다 푸바오와 엄마 판다, 아빠 판다를 보았습니다. 판다가 대나무를 먹는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맛있게 먹는 모습 같았습니다. 2년 전에도, 00원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소풍을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오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소풍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아기와 엄마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추억으로 간직할만한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운다고 일과 삶에 치여서 여유가 없었는데, 예쁜 꽃과 즐거운 공연으로 아이들의 함박웃음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올해도 행복하세요. 파이팅.

김**

처음으로 참석하였는데, 아이가 좋아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선물도 사주고 하니,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정**

오랜만에 에버랜드에 와서 예쁜 꽃과 사진도 찍고, 예전 시설에서 함께 있었던 엄마들도 만나서 너무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또한 식대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이한테 "안돼"라는 말을 하지 않고 플렉스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오늘 많은 시간과 무서운 놀이기구(T-익스프레스)를 타니, 온몸이 날아가는 듯 즐거웠습니다. 식사 후 공원을 거닐면서 음료와 구슬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푸바오 판다를 보면서, 아이들도 너무 신기해하고, 대나무와 잎을 먹는 판다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익스프레스 놀이기구를 타면서, 운 좋게 물벼락을 맞지 않고, 적당한 스릴도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김**

화창한 날씨와 함께 푸르른 녹음과 장미정원에서의 휴가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소 긴 대기시간으로 다리는 조금 힘들었지만, 아이와 함께 스트레스도 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가족 나들이었습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

코로나로 인해, 아이와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에버랜드에 있으니, 자연에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이의 키가 120cm가 넘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서, "그새 아이가 많이 컸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1년 중 가장 기대되는 에버랜드 체험활동으로 엄마인 저도 답답했던 마음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역시 아이도 신났는지 미소를 계속 지으며, 재미있어 합니다. 이제는 이 행복나들이가 없어서는 안 될 큰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는 이번 나들이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 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놀이공원보다 아이가 탈 수 있는 게 많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온다면, 더 신나게 아이와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부자의 하루

저는 오늘 찐으로 부자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진심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이와 저는 단 둘이서만 보냈습니다. 아이와 저는 비겁한 겁쟁이라서 회전목마도 3번 타고, 시크릿 쥬쥬도 2번 타고, 자동차 경주도 3번 타면서 즐거웠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에서 아이와 저는 제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 것만 구입 하였는데, 오늘은 제 것을 구입 하려고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9천 원짜리 열쇠고리였는데, 참 설레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베개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 것을 구입하다니 오마이 갓!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 꼭 불러 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사막여우 인형도 사고, 아이 베개도 구입하였습니다. 평소에는 하나씩 사주는데, 오늘은 두 개나 사주고, 바디페인팅도 해주었더니 아이는 너무 신났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니, 기억나지 않았던 제 아동기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에버랜드에서 진짜 부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지난 주말 아이에게 다음 주 금요일 에버랜드로 소풍을 간다고 했더니, 아이는 한주 내내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몇 밤이 지나야 소풍날이 오는지 매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4살 때, 놀이동산에 놀러 가보고, 3년이 흘러서인지, 아이는 동화책이나, 엄마가 이야기해줬던 놀이기구가 있는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온종일 아이는 지치지도 않는가 봅니다. 물에 젖은 솜처럼 묵직한 제 다리와 반비례로 아이의 행복감은 하늘을 치솟습니다. 매일 뭐 사 달라 하면 돈 없다고 했던 저인데, 지금은 사파리 버스 장난감도 사주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도 맘껏 사주니 좋다고 함박웃음입니다. 오랜만에 아이만 바라보며, 온 마음 가득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담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간직하며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방**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생활 속에 활력소가 된 것 같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집안(주거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 딸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요즘 짜증을 계속 부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고 다행인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단비 같은 후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

아이와 너무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뛰어가고 오랜 줄서기에도 짜증내지 않고, "너무 재미있다며 집에 가기 싫다"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한동안 여행도 못 가고 아이와 같이 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온 아이의 행복한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들을 더 못 타서 아쉬웠습니다. 아이와 한동안 답답하였는데, 바람도 쐬고, 신나는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나들이다운 나들이도 못 가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에버랜드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이와 함께 구경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 모드였던 저를 집 밖으로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후원해 주신 분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제 아이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정**

오랜만에 에버랜드 나들이.

아이와 엄마도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잘 놀다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매번 즐겁게 놀다 갈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

정말 오랜만에 사춘기 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손목을 다쳐 한쪽 깁스를 했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나들이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열정 덕분에 너무나 유익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겨운 세월을 보냈지만, 어느덧, 15살 중2가 된 아들을 보면서 새삼 뿌듯합니다.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까 하다가도, 그냥 세월이 흘러 15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모자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낸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진 않았지만, 매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를 참여하면서,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중에 결실이 생기면 언젠가는 소장님께 고민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행복나들이 꼭 해주세요.

박**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중단되면서 2년 가까이 아이와 여행이나 여가를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나들이를 통해 오랜만에 밖에 나와 아이와 함께 꽃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와 함께 교복도 입어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정말 즐겁고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기회가 생겨서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습니다.

임**

안녕하세요. 8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5월 8일이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연휴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많아서, 놀러가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에버랜드를 가고 싶어 했으나,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동선도 길었지만, 곧 잘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5월의 예쁜 날 아이와 웃고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입장권과 같이 주신 상품권으로 아이가 사고 싶은 것도 사주니, 방긋 웃으며, "엄마 오늘이 생일이면 좋겠어"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에버랜드와 별 개로 애써주신 법률상담도 좋았습니다. 아이가 취학하면서, 이것저것 공동친권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깔끔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셔서, 친권재판도 마음먹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기 내어 차근차근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양**

밖으로 나오기까지 걱정도 많았고, 마음이 복잡하였지만, 에버랜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휴가 온 느낌처럼 설레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살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놀러 간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 전 보다 지금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쁜 아이가 저에게 와주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어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허했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촉촉하게 제 마음을 적신 듯,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초보 엄마에서 성숙한 엄마가 된 날이 된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따뜻한 엄마가 되어가나 봅니다. 나는 아이 엄마다. 미스코리아 아이 엄마. 사랑합니다.

천**

길고 긴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오랜만에 에버랜드에 오니 설레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새 조그맣던 아이가 훌쩍 커서, 이제는 '엄마와 함께 오는 것이 재미없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이제 엄마보다 친구가 좋은 나이, 사춘기가 왔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아이와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 보내게 해 주셔서 가정법률상담소와 애란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즐겁게 놀 수 있게 1박 2일 일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에 아기가 아프기도 했고, 바쁜 생활로 인해, 육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행복나들이를 통해 쉼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출산 후, 처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나들이도 많이 다녀왔지만, 이렇게 활동적인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

오랜만에 나와서 놀이기구를 타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대기 줄 서는 것이 힘들었으며, 햇빛이 없었는데도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보면서 육아의 고통이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자립 후,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상황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오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최**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며, 힘든 상황이지만, 행복나들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시설 언니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김**

임산부라서 놀이기구를 타진 못했지만, 오랜만에 놀이공원 오게 되어 좋았습니다.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고, 퍼레이드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어서 앞으로 5년은 못 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쁜 딸 아이와 함께 오고 싶습니다.

송**

창밖으로 바라보는 한강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자서 놀러 가기도 쉽지 않은 에버랜드. 오늘 이렇게 방문하여 여기저기 느끼고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쁜 꽃,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한송이 두송이 겹쳐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 느끼면서 노력으로 피어나는 꽃도 노력으로 피어나니까요. 곱게 아름답게 아이하고 힘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예쁜 꽃 좋은 풍경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걷고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에버랜드 간다고 하여 오게 되었는데, 가정법률상담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올해 대학입학 후, 늦은 학업, 육아와 대인관계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엄마들과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놀이기구는 많이 타지 못해 아쉬웠지만, 엄마에서 잠깐 벗어나 한 여자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으며, 파이팅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비혼모 관련 교육과 캠프 연혁

	일 시	장 소	참가(명)	비 고
1	2009. 7. 11	아카데미 하우스	비혼모 20명, 자녀 18명	
2	2015. 9. 18 ~ 9. 19(1박 2일)	쁘티 프랑스	비혼모 31명, 자녀 24명	
3	2016. 3. 4 ~ 3. 5(1박 2일)	에버랜드	비혼모 54명, 자녀 51명	삼성생명 지원
4	2016. 7. 23 ~ 7. 25(2박 3일)	한국여성수련원	비혼모 44명, 자녀 42명	삼성생명 지원
5	2016. 9. 23 ~ 9. 24(1박 2일)	에버랜드	비혼모 59명, 자녀 59명	삼성생명 지원
6	2017. 3. 31 ~ 4. 1(1박 2일)	에버랜드	비혼모 62명, 자녀 62명	삼성생명 지원
7	2017. 7. 22 ~ 7. 24(1박 2일)	한국여성수련원	비혼모 44명, 자녀 44명	삼성생명 지원
8	2017. 9. 15 ~ 9. 16(1박 2일)	에버랜드	비혼모 44명, 자녀 48명	삼성생명 지원
9	2018. 3. 30 ~ 3. 31(1박 2일)	에버랜드	비혼모 56명, 자녀 38명	삼성생명 지원
10	2018. 7. 21 ~ 7. 23(2박 3일)	한국여성수련원	비혼모 44명, 자녀 41명	삼성생명 지원
11	2018. 9. 28 ~ 9. 29(1박 2일)	에버랜드	비혼모 50명, 자녀 49명	삼성생명 지원
12	2019. 3. 29	에버랜드	비혼모 40명, 자녀 45명	삼성생명 지원
13	2019. 7. 20 ~ 7. 22(2박 3일)	한국여성수련원	비혼모 42명, 자녀 40명	삼성생명 지원
14	2019. 9. 6 ~ 9. 7(1박 2일)	에버랜드	비혼모 35명, 자녀 33명	삼성생명 지원
15	2019. 11. 14	에버랜드	비혼모 37명, 자녀 24명	삼성생명 지원
16	2021. 11. 26	에버랜드	비혼모 10명	삼성생명 지원
17	2022. 5. 20	에버랜드	비혼모 56명, 자녀 43명	삼성생명 지원
	2020			교육자료 발간 및 전국 배포
	계		비혼모 728명, 자녀 661명	

조**

몇 년만의 나들이인지, 얼마만의 에버랜드인지. 너무 반갑고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어느새 아이가 커서 그전에는 못 타던 놀이기구도 탈 수 있어서 동물원이 아닌 놀이기구 타는 곳에서 온종일 살았습니다. 주신 상품권으로 부담 없이 아이가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사줄 수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1박 2일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아이가 먹은 솜사탕처럼 달달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점점 사라지던 중에 행복나들이라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아이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손잡고 걸으며 동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며, 아이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법교육

	일 시	장 소	참가(명)	비고
1	2010. 3. 27	애란원	30명	
	2010. 11. 10	애란원	20명	
2	2011. 4. 16	애란원	40명	
3	2012. 10. 20	상담소	80명	
4	2013. 5. 9	애란원	20명	
	2013. 9. 28	상담소	30명	
5	2014. 4. 17	애란원	20명	
6	2015. 3. 16	애란원	9명	
	2015. 5. 27	애란원	20명	
	2015. 10. 21	애란원	15명	
7	2016. 2. 17	애란원	20명	
8	2017. 2. 21	애란원	53명	
9	2018. 2. 8	애란원	20명	
10	2019. 4. 11	애란원	20명	
	2019. 5. 9	애란원	20명	
	2019. 6. 13	애란원	20명	
	2019. 8. 8	애란원	20명	
	2019. 10. 10	애란원	25명	
11	2020. 10. 15	애란원	5명	
12	2021. 11. 24	애란원	15명	
	총횟수	20회	참여자	502명

김**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니 행복하였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선물도 사줄 수 있어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은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과 애란원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곳에 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쁜 장미꽃을 보면서 힐링도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

오늘 에버랜드에 와서 아이들과 봄나들이 구경 실컷 하고, 양육 스트레스도 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었던 코로나로 문화생활도 못하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야외에서 마스크도 풀고, 사랑하는 딸들과 자유롭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가족 나들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긴 대기 시간에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기념품도 사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애란원 식구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저는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지 않았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다른 놀이공원보다 아이가 탈 것도 많았고, 덕분에 정말 힐링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도 에버랜드에 처음 온 것인데, 다음에는 더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아이가 피해자 진술을 하고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웃어도 하나도 웃는 게 아닌 얼굴로 지내고 있습니다. 입은 싱긋한데 눈과 뺨이 굳어 있어서 내심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건을 겪기 전에 에버랜드 노래를 불렀습니다.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하면서요. 길게 늘어선 줄에 저는 환장하겠는데, 아이는 오랜만에 해맑게 웃으며 방방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아직 놀이기구는 타지도 못했는데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네요. 즐거워하는 아이의 사진을 찍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사진 속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으로 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신나하고 온몸으로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발바닥은 환장하게 화끈하고 종아리는 아픈데 행복합니다. 어린이다운 웃음소리와 바이킹을 6번 탔습니다. 대신 줄을 서주는 엄마가 되었지만, 내리고 타고를 반복하면서 아이가 점점 더 밝고 맑게 웃습니다. 행복나들이 프로그램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와 저는 행복합니다.

특●별●기●고

깊은 신뢰와 감동의 인연으로 맺어진 애란원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 영 실
애란원 원장

애란원은 1960년에 미국 북장로교 반애란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어 생명, 모성, 가족 친화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미혼모와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며, 2001년 이후로 5개의 생활시설과 1422-37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1422-19 청소년미혼모SOS 긴급전화, 나·너·우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나래대안학교로 확대되어 위기임신에서 지역사회 자립까지의 단계적인 '애란한가족네트워크' 지원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처음으로 미혼모의 양육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미혼한부모가족으로부터 출생신고, 인지, 친권·양육권·양육비, 입양, 가족관계등록, 가정폭력, 파산 및 면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들이 호소되었고 이 시기에 1956년 개소하여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미혼모와 애란한가족네트워크에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2009년부터 13년 동안 함께 일해오면서 다른 법률구조기관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미혼모들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여 법률교육과 상담에 반영하고, 법 개정 토론회,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시켜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담소의 진정성 있고 충실하며 지속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애란한가족네트워크의 파트너 기관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9년부터 애란한가족네트워크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고, 미혼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교육이나 건강보험 관련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비혼모 부양청구권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4년에는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미혼모가정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가족관련 법률의 입법 및 개정 운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애란한가족네트워크 시설 입소 가정 및 지역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녀 동반 캠프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봄가을 진행된 에버랜드 캠프는 나들이에 더하여 법률교육 및 상담이 실시되었고, 2박 3일 진행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는 여름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쁨과 법교육 및 상담, 주거복지교육, 댄스테라피, 이미지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2016년부터 매년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진행된 2박 3일의 여름캠프는 미혼모들에게는 교류의 시간이자 자연을 벗하며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쉬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고, 학령기 아동들에게는 여름방학의 즐거운 가족 여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생활' 책자를 만화책으로 발간하여 미혼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관련 법률과 제도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네트워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시 필요한 다양한 법률교육을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 애란원이 다문화·외국인미등록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2022년 3월 23일 개최한 '외국인 위기임산부자의 임신출산 관련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외국인임산부들이 호소한 법적 이슈 및 개선방안' 에 대한 주제 발표를 상담소에서 담당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 및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구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통합적인 여성 및 가족 관련법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미혼모와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늘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금처럼 변함없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족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그 가정이 사회에서 정당한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활동들을 지속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 직후 화해했더라도 상담 통해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2019버2*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음주문제상담 2회,
부부상담 8회 등 18회

상담기간

2020. 6. 4. ~ 2020. 12. 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28세, 24세)이 있다. 2019년 10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부부동반 모임 후 다음 날 일을 위해 먼저 들어와 잠을 잤는데, 후에 귀가한 피해자가 잠을 깨워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아들에게 종이 상자를 던지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이후 부부는 화해하였으며 결혼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행위자가 가사를 더 많이 하고 말도 친절하게 하는 등 노력하였다고 인정하였지만, 행위자의 가부장성이 변화되기를 바랐다. 한편 행위자는 피해자가 술을 줄여주기를 바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거의 매일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만 술을 마시는데 현재의 음주 수준 내지는 현재보다 더 절주하면 좋겠다고 했다.

부부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중간 점검 결과 피해자는 현재 상태에 대해 만족하였지만, 행위자는 피해자의 음주습관이 더 개선되기를 바랐다. 이와 관련 합의점을 모색한 결과,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음주모임을 줄이고(주 1회) 행위자와의 음주 횟수도 줄이기로 하였으며(주 1회), 행위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수준으로 음주 횟수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부는 음주량도 줄이기로 합의하였고 잘 실천하였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에 법적개입을 요청하기 잘하였다고 생각한다며 부부관계만족도를 사건 당시는 0점, 현재는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가 이전보다 피해자의 행동을 덜 간섭하고 구속 정도도 약해졌다고 인정하였으며 향후 피해자의 의견을 더 수용해 주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이전보다 모임도 줄이고 술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점을 인정하였고, 가끔 도에 지나칠 때는 전과 달리 행위자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두 사람의 변화로 꼽았다.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0점, 현재는 10점 만점에 6~7점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상담 기간 중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❻

● 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Q 문 18 | 2년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임을 알았고 아내도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따라서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용서를 했으므로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재결합 이전의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

Q 문 19 | 저는 3년 전 아내가 직장동료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재결합을 강하게 원하여 고심 끝에 1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난날이 생각나 아내에게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아내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되나요?

A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이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청구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따라서 아내의 과거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Q 문 20 | 저는 밤길에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나요?

A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임신 및 출산으로 갓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전 남편 사이의 이혼신고가 늦어져 이혼신고 전에 저와 임신을 하였고, 이혼신고 후로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자녀를 친생자로 등록하여 영유아검진 • 예방접종 등 양육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비롯한 친생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A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률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

이에 대해 민법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2017.10.31. 신설, 2018.2.1. 시행)."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절차의 청구권자는 자녀인 사건본인의 모 또는 모의 전 남편이고,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심판 확정시에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건본인의 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생부 역시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은 "생부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55조의2 제1항, 2017.10.31. 신설, 2018.2.1. 시행)."라고 규정하면서 '인지의 허가청구' 절차를 두었습니다. 청구권자는 사건본인의 생부이고,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생부의 출생신고 시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인지의 허가를 받은 생부만 인지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전혼 자녀로 추정되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직 출생신고 전 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들은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미비된 채 지내야 하는 공백기간이 존재하므로 '출생통보제(2022.3.4.자 법무부 제출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가 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출생 직후 바로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박슬기 변호사

영화 이야기

쁘띠 마망

감독 셀린 시아마
출연 조세핀 산스, 가브리엘 산스, 니나 므리스

2020년 한국에서 개봉했던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신드롬을 형성했다. 18세기 프랑스의 이성애 중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억압당하는 성소수자들과 쉽게 지워져 버린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더없이 아름답게 복원한 영화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극장가가 점차 한산해지던 무렵까지 끈질기게 한국 곳곳의 극장에 걸리며 1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뒤이어 〈워터 릴리스〉〈톰보이〉〈걸후드〉 등 감독의 전작들까지 한꺼번에 개봉하면서, 소녀들의 비밀스러운 마음의 움직임과 사회/가정의 억압에서 탈출구를 찾아내는 반항적인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 비범한 솜씨를 보이는 연출자임을 확신시켰다. 바로 그 셀린 시아마의 신작 〈쁘띠 마망〉이 얼마 전 개봉했다.

줄거리는 아주 단순하다. 여덟 살 소녀 넬리(조세핀 산스)는 외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엄마 마리옹(니나 므리스)과 함께 시골집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넬리는 동갑내기 소녀 마리옹(가브리엘 산스)을 만나 단숨에 친해진다. 넬리는 친구 마리옹이 어린 시절의 엄마임을 깨닫는다. 이건 놀랍게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같은 이야기다. '어린 엄마'라는 매우 정직한 제목은, 영화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나면 곧장 앞으로 무슨 얘기가 펼쳐질지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된다.

영화 첫 장면부터 넬리는 죽음과 맞닥뜨린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있던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마침내 숨을 거둔 것이다. 병원을 워낙 오래 들락거렸기 때문에 넬리는 다른 방의 할머니들과도 친하다. 이제 병원에 올 일이 없으니, 넬리는 각방마다 들어가서 할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안타깝게도 정작 외할머니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넬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의 유한함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진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에 정확하게 귀 기울이며 받아들이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생각한다. 아이들이 무거운 어둠에 대해, 실망과 좌절에 대해, 노화와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들의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정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다.

특히 넬리는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관심이 많다. 엄마는 내 나이 때 큰 수술을 받았고, 그전에는 숲에 혼자

만의 오두막을 지어 놀았으며, 밤에는 창가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를 보고 흑표범을 상상하며 겁에 질렸다고 했다. 넬리는 어린 시절의 엄마가 자던 시골집 방에서 잠들고, 엄마가 놀러 다니던 숲속을 찾아간다. 엄마의 패들볼 장난감으로 혼자 공을 치며 놀아보기도 한다. 그리고 아빠에게 진지하게 불만을 토로한다. "아빠는 어릴 때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 "그럴 리가, 늘 하는데." "하지만 사소한 것들뿐이야. 진짜 얘긴 못 들었어. 예를 들어 아빠가 무서워했던 거라든가." 그러자 아빠는 묘한 얼굴로 넬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속삭인다. "난 아버지가 무서웠어." 아빠는 아마도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느꼈던 두려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부모에게 느낀 거리감, 그리고 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이다.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엄마는 종종 우울한 얼굴을 했다. 넬리는 그 우울함의 원인이 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분명 엄마가 원하던 삶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한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아픔을 여덟 살짜리 딸에게 시시콜콜 털어놓는 사람은 아니다. 엄마의 슬픔을 위로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던 넬리는 자신과 동갑내기 소녀 시절의 엄마를 만나게 되자, 마음을 다해 따뜻한 우정을 건넨다. "아빠, 다음번은 없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내 앞에 있을 때 진심을 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쁘띠 마망〉은 부모와 아이, 특히 엄마와 딸 사이에 이어지는 '차이와 반복'에 대한 이야기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같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어떤 기질의 닮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태도의 닮음을 의미한다.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모든 걸 알고 싶은 거대한 존재이자 거울인 것이다. "난 네 뒤에 난 길을 따라왔어." 넬리의 이 말이 안겨주는 울림은 그렇게 깊고 넓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자원봉사자

· 전화 상담을 도와주신

권영덕,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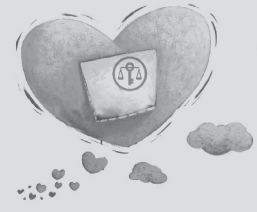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가령, 김나영, 김도연1, 김도연2, 김민제, 김민주, 김상은, 김선욱, 김연주, 김영지, 김 원, 김지민, 김지유, 김지현, 김태은,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효진, 노현정, 문송지, 문연수, 민지용, 박도윤, 박선우, 박아영, 박태희, 배호진, 백소연, 봉수빈, 송은하, 신새미, 신수민, 안흥준, 오수민, 이서현, 이세진, 이수민, 이수정, 이수지, 이승준, 이예원, 이진우, 임가현, 장보민, 장아현, 장지수, 전우정, 전준혁, 정유나, 정은영, 정지현, 정채연, 정희재, 조예원, 최세은, 최신양, 한기연, 허경호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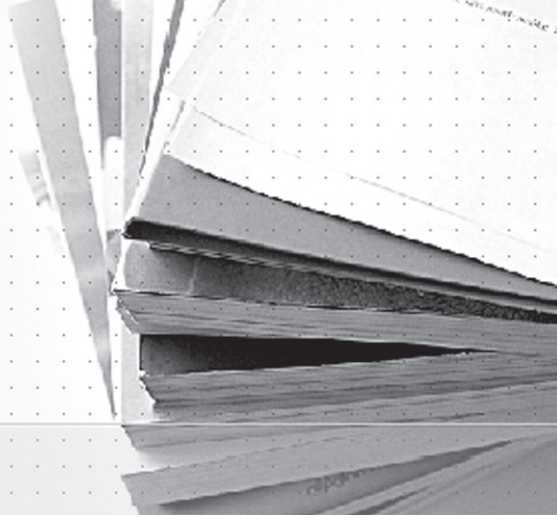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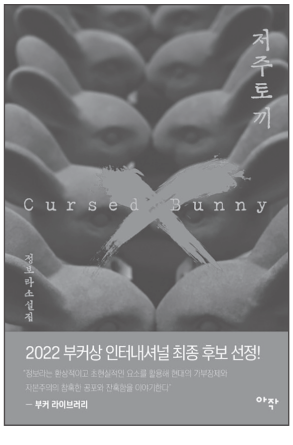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저주토끼

정보라 소설집

아작, 2022



문학에 대해 생각할 때, 곱씹게 되는 화두 같은 것이 고인이 된 평론가 김현의 말이다. 그는 '이 세계는 살만한 세계인가.' 묻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고 했다. 그리고 소설 속에는 소설가의 욕망과 소설 속 주인공들의 욕망 그리고 독자들의 무의식적 욕망이 겹쳐 있으며 이 세계의 현실원칙은 쾌락원칙을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다고 이야기 했다.

『저주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는 "원래 세상은 쓸쓸한 곳이고 모든 존재는 혼자이며 사필귀정이나 권선징악 혹은 복수는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일을 완수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로우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저주토끼』를 다 읽고 나서 작가의 말을 읽으며 김현 평론가의 말을 다시 생각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대를 이어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손자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가 오래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친구를 대신해 '저주토끼'를 만들어 복수에 나선 이야기를 듣는 손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첫사랑 인조인간의 – 아니 인조인간들이라고 해야 할까 – 복수, 그리스 신화 미다스 왕보다 더한 최후를 맞이한 것 같은 황금을 탐한 남자의 이야기, 복수를 했으나 그것이 합당한 결말이라 해도 밀려오는 상실감에 망연자실한 주인공이 안타까운 '흉터' 등, 이야기 전체는 괴이하고 스산하고 결국에는 작가의 말처럼 "쓸쓸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주토끼』가 2022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1차 후보가 되었고 이에 한국 문학계는 몹시 놀랐다는 보도가 있었다. – 한국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모두 다 그렇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기자는 '무명의 부커상 후보'라는 표현을 써서 탄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이어 『저주토끼』는 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랐고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마법적 사실주의, 호러, SF의 경계를 초월했다.", "현대 사회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매우 현실적인 공포와 잔인함을 다루기 위해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라고 평했는데 공감이 되었다.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학교 인문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 예일대학교 러시아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거쳐 인디애나대학교 솔라브어문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러시아를 비롯 슬라브어권의 명작들을 꾸준히 번역해서 소개하고, 수준 높은 호러와 SF, 판타지 창작으로 사랑받아 왔으며, 관습과 허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래도록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라의 서늘하고 쓸쓸한 이야기, 잔혹한 유머를 담은 독특한 장르의 정수를 『저주토끼』가 보여준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부커상 수상자가 발표되었고 정보라 작가의 수상은 불발되었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매혹은 반감되지 않는다.

이숙현 편집부장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무자협의회 가져

5월 26일 본소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간의 양육비이행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가 본소 8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업무 절차 관련 개선방안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확대 그리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홍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이날 협의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주원 상임이사, 장정인 위탁지원부 부장, 김민정 위탁지원부 부원과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유혜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상담소 변호사 회의, 소송구조 사건 검토

5월 31일 상담소 변호사 회의가 있었다. 상담소 소속 변호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던 이날 회의에서는 곽배희 소장과 상담소 소속 변호사 및 상담위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육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5월 26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조건인 자율성'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병후 원장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율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자기의 감정을 읽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한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모두 26명이 참석하였고 이 강의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이루어지며 다음 강의는 6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5.4.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천다라 상담위원

5.18.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유혜경 상담위원

5.19. 폭력예방교육 - 숭의여중
- 박상진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워크샵에서 '사적부양관련 이슈와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26일에는 본소 8층에서 진행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주관 "양육비 실무자 협의회"에 본소 김민선 변호사, 유혜경 상담위원과 함께 참석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임이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관리부 부장, 김민정 부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서 5월 12일 및 19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이혼등 사건 등을 조정하였다. 24일~25일에는 김진영 상담위원과 함께 조선일보에 2021년도 본소 노년이혼 상담 통계 및 사례를 제공하고 코멘트하였다. 29일에는 경향신문과 공직선거법상 성차별 및 평등권 침해 규정에 관하여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2022년 5월 상담통계

총 건수 5,317			
법률상담 (4,76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894	3,672	137	60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33	38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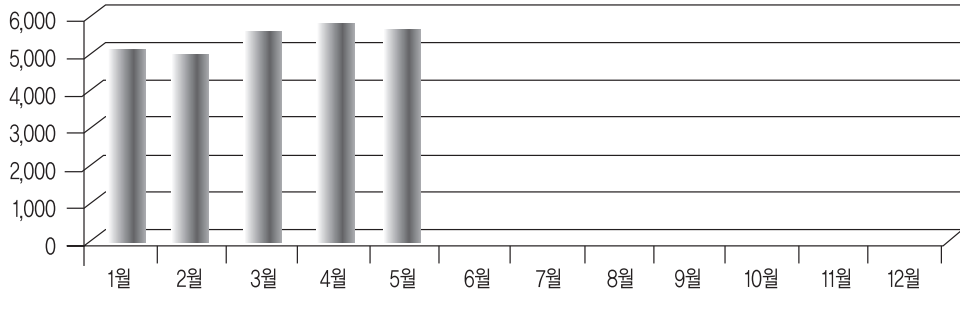
• 인터넷 정보 이용 46,91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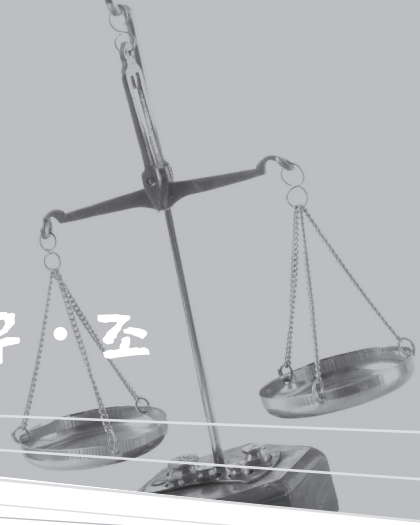
2022년 5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31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763건(89.6%), 화해조정 433건(8.1%), 소장 등 서류작성 38건(0.7%), 소송구조 83건(1.6%)이었다.

법률상담 4,76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은 이혼(22.3%→24.4%), 위자료·재산분할(7.8%→9.2%), 친권·양육권(4.6%→4.9%), 면접교섭권(2.8%→2.9%), 인지(0.9%→2.6%), 혼인무효·취소(0.4%→0.5%), 성년후견(2.5%→2.7%), 가사절차(5.7%→5.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민사사건은 임대차(0.1%→0.2%), 민사절차(0.0%→0.2%), 민사기타(0.3%→0.5%), 형사사건은 형사절차(0.1%→0.2%), 형사기타(0.4%→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76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94건(18.8%), 전화상담 3,672건(77.1%), 인터넷상담 137건(2.9%), 순회상담 60건(1.2%)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30년간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던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1-1-37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1991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성인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피고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녀들이 성년이 되자 금전적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원고의 친정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일 연락하고 원고의 친정으로 찾아와 괴롭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4.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0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23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배우자와의 잦은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였다.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더욱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된 신청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였다.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였고, 약 3년간은 별 탈 없이 운영해나갔으나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구직이 어려웠지만 채무변제를 위해 일용근로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였다. 하지만 위와 장에 천공이 생기면서 결핵을 앓게 되었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친부의 병환으로 치료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가중되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친부는 작년에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일용근로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지인의 가게 일을 조금씩 도우며 월 평균 20만 원정도 받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21-1-449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7,000만 원의 대출을 얻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개월 만에 투자를 받은 사장이 해외로 도주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은행 금리가 한없이 올라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던 신청인은 당시 거주하던 부동산을 매매하여 일부 빚을 변제 하였다. 그럼에도 잔존채무가 있어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았고, 구직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의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신청인도 잔병치레를 겪으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여 월 평균 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 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5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21-1-466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10년 10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0대)을 두었으나, 2012년 6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약 4개월 후 친권자변경심판을 통해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혼 후 지금까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거나 만날 수 없었다.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월 15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으나 개인회생을 진행 중으로 청구인 혼자 힘으로 노모와 초등학생인 사건본인을 보살피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2. 3. 2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만 원(2022. 2.분 양육비)을 2022. 4. 30.까지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2.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외자가 전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통해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21-1-474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1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남, 40대)를 부로, 친모 ○○○(여, 40대)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의 친부는 피고가 아니다. 원고의 친모는 피고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과 이미 임신이 된 줄 모르고 피고와 함께 생활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와중에 피고는 2003년경 원고 친모의 신분증을 훔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결혼생활 중 피고가 친모와 원고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친모는 피고와 이혼을 하고 홀로 원고를 양육하였다. 그러다 최근 원고의 국민지원금을 이미 피고가 수령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2022. 5. 1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7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6월 13일, 6월 27일, 7월 11일, 7월 25일)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6월 23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8일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인가?
8월 25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6월 9일	분노의 결과, 화내지 않기 위해 화를 내는 거예요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7월 13일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7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10월 12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7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2년 8월 15일 ~ 8월 17일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2-3601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 시 ▶
2022년 8월 15일~17일
대 상▶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재개

5.9(월) 부터 야간상담을 재개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재개

5.9(월)부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을 재개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 사전 예약 필수 -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가정법률 화상상담> 개설 예정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